



소방기술, 힘과 체력은 필수



젖먹던 힘까지 다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두 남자, 사람들의 탄성이 오가던 광활한 승부 끝에 마침내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남자들 힘자랑하는데 종종 등장하는 팔씨름이지만 이번 승자는 좀 특별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광주 대표 자격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지난달 광주 광산구 소총동에 있는 광주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역 예선이 펼쳐졌습니다. 출동 단계별 400m 달리기, 팔씨름, 마네킹 앤고 달리기 등 광주 대표를 뽑는 이 대회는 동·서·남·북·광산구에 있는 소방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얼핏 장난스레 보이는 대결이지만 모두 소중한 생명과 연결 고리를 맺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생사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체력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른 이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불속으로 뛰어듭니다.

얼마전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세 명이 화마에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아빠, 아들, 남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으로 신음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마땅한 공간과 시간 없이 훌륭한 운동을 했다면 팔씨름 왕, 더 많은 팝방을 속에 더욱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선생님과 학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어느 시인이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근을 갔다.

“혹시 백일장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떤 학생이 물었다.“선생님, 여기는요? 백일장이 아니라 오일장이에요!”

■ 그게 말이지

몹시 추운 어느 겨울 날 순진한 청년이 여인숙에 놓여 되었다. 총각이 옷을 벗고 조용히 누워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노크를 하고는 말했다.

“총각! 불~러~줄까?”

총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아니예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 후,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총각 불~러~줄까~”

총각은 신경질을 내며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총각이 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이 할머니에게 전날 밤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니~ 참, 요상하네요~! 나가 말이시 불 넣어 준다구 하니까 총각이 자꾸 삶다구 하더란 말이여!”

■ 우리 엄마

세 살 먹은 꼬마가 엄마와 백화점에 갔다. 장난감 매장에 간 꼬마가 장난감을 집을 때마다 당시 큰 아이가 낚아채면서 외쳤다.

“이건 내 거야!”

상황이 반복되자 꼭 참고 있던 꼬마가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내 거야!”

■ 남편의 선물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선물로 팬티를 사주기로 마음먹고 백화점에 갔다. “부인용 팬티 하나 주세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갸우뚱하니 대답했다.

“사이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30인치 텔레비전 앞을 지나갈 때면 화면이 안 보입니다.”

■ 누가 누가 잘하나

한 엄마가 어린이집에 맡긴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다른 부모와 얘기를 나누게 됐다.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은 4개월 만에 혼자 일어나 앉았고, 6개월에는 기어다녔으며 둘이 되기 전부터 걷기 시작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들이 말을 잘한다고 자랑을 늘어놓던 여자가 물었다.

“1년 4개월 된 택의 아이도 말을 하네요?”

“아뇨. 우리 에는 별로 말이 없는 아이예요. 대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주로 글로 쓰죠.”

■ 이럴 땐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좋지 않자 회의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매시간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다녀온 수학 선생님에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질문을 던지면 모두 다 손을 들도록. 단답을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모르는 사람들은 왼손을 들도록.”

■ 농부와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 눈두덩으로 추락했다. 때마침 논을 살피러 나온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

농부는 땅을 과고 국회의원들을 모두 정성껏 묻어주었다.

며칠 뒤 경찰이 지나가다가 부서진 버스를 보고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자신이 국회의원을 전부 묻어주었다고 대답했다.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까?”

그러자 농부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뭐 몇 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 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 SINAN 웰도리도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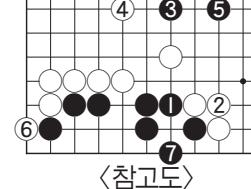
www.dongatv.co.kr 222-6253



선수와 후수의 차이

개인전 준결승 2국 4보(45~64)

白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黑 방재혁 5단
(창이유동)



백 45로 끼운 수가 행마의 맥점으로 좋은 수였다. 이때 흑은 46으로 끊을 수가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48로 우변을 갈라 쳐서 여전이 백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백 52로 젖혀이은 수는 엄청나게 큰 곳으로 두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러나 이 수는 시기상으로 ‘가’에 두어 중앙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좋았다.

김영수 5단은 선수라고 믿고 52에 젖혔으나 이것이 달콤한 혼자만의 생

각으로 자칫하면 선수를 끊어 좋은 흐름을 막칠 뻔 했다.

방재혁 5단이 일단 흑 55로 불이는 착상을 한 것은 좋았다. 그

런데 57로 불이고 다시 61로 후수로 산 것이 문제였다. 57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고 3으로 두고 5로 지켜 얼른 중앙을 삼각해 했다. 귀는 6으

로 젖혀도 7에 두면 산다. 거꾸로 선수와 후수가 바꿔져 백이 64로 지켜

서는 백의 호조인 국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바둑소식

오늘 삼성화재배 본선 개막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오픈 본선전이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대전에서 열린다. 본선 32강에는 시드 16명과 통합 예선 통과자 16명 등 모두 32명이 출전한다. 한국은 이세돌, 이창호, 조훈현, 박진석, 박영훈 9단 등이 출전해 중국의 구리, 흥이중 9단과 우승을 다퉁는다.

본선 첫 경기는 ‘상대선수 지명제’로 진행된다. ‘상대선수 지명제’는 예선 통과자 16명이 출전을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시드 16명 가운데 겨우 기사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이다. 대회 우승 상금은 2억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다.

/오광철 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37>

Why don't we get a bite to eat?

간단하게 먹으려 가시죠

A : Why don't we get a bite to eat?
B : Sounds good to me. I'm starving.
A : Do you like Burger queen?
B : Yeah. Let's go there.

A : 간단하게 먹으려 가시죠.
B : 좋은데요. 배고프거든요.
A : 버거 뭔 어때요?
B : 그려죠, 거기로 갑시다.

* 간단한 요깃거리 = a bite to eat
* starve : 배고프다
* 오늘은 그만 일합시다.
= Why don't we cal lit a day?
* 그녀에게 전화하시죠.
= Why don't you call her?

오하요우 니혼고 <1137>

ご兄弟(きょうだい)は何人ですか。

형제가 몇 명입니까

A : 目黒(めぐろ)さんは、ご兄弟(きょうだい)は何人ですか。
B : 兄(あに)と妹(いもうと)の3人兄弟ですが、先月結婚した兄夫婦(ふうふ)と一緒に住んでいます。
A : じゃ、義理(ぎり)のお姉(ねえ)さんと全部で4人ですか。
B : ええ、皆仲がよくて、楽しい家族ですよ。

A : 메구로 씨는 형제분이 몇 명입니까?
B : 형과 여동생 3형제입니다만, 지난 달 결혼한 형 부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A : 그럼, 형수(을개)와 전부 4명입니까.
B : 예에. 모두 사이가 좋은 단란한 가족입니다.

ご兄弟(きょうだい) : 형제분
夫婦(ふうふ) : 부부

니하오 쟁구워 <214>

您找哪位?

누구를 찾으세요?

A : 喂, 您好。
B : 您找哪位?
A : 请问，苏老师在吗?
B : 啊，你好。

A :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B : 누군가 찾으세요?
A : 請坐喫茶店內的 李先生 請坐喫茶店內的 李先生
B : 아, 안녕하세요.
A : 您 哪里 ?
B : 请到哪里去 ?

한자 이야기 <854>

一針見血(일침견혈)

한 일, 비늘 침, 볼 견, 피 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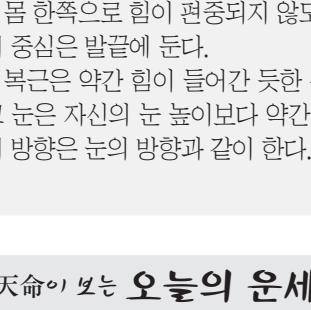
일침견혈(一針見血)은 한대의 침으로 피를 본다는 뜻으로, ‘간단한 요령으로 본질을 잡아 낸다’는 비유이다. 이 말은 원래 의술과 관련된 말로, ‘후한서(後漢書)’의 “한 번 침을 놓으면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곽목은 중국 침구술(針灸術)의 창시자인 부옹의 손제자(孫子)로, 한(漢)나라 화제(和帝)의 어의(御醫)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의술에 정통해 그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효험을 보았다고 전한다. ‘견혈(見血)’은 뛰어난 의술로 한 번 침을 놓아 피를 보는 것으로, 사혈(死血)을 빼내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발모 같은 곳을 빼었을 때 침(針)을 맞으면 즉시 효과를 보는 것처럼, 침(針)으로 병소(病所, 균이 모여 있는 곳)의 정곡(正鵠)을 찔러 ‘죽은 피’를 빼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침견혈’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단번에 정곡을 찌르는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단도직입(單刀直入) 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리빙 센스

목소리 관리하기



■ 목소리 좋아지는 법
담배는 성대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금연하고 술은 호흡이 짧아지므로 과음 하지 않는다.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하루 6~10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한다.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 부르기 전에는 술, 카페인 음료, 유제품 섭취를 삼간다.



9월 2일(월) 8월 31일(화)

36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48년생 척추부터 자주 아파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다. 60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2년생 복을 나누어라. 84년생 불고기 배에서 음이 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1, 34